



国内消息

科技处, 先進尖端技術 積極 유치-共同으로 연구개발 추진

全斗煥大統領 주재로 열린 제 3 회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李正五 科技處長官은 「산업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기술 原産地에 연구소를 진출시키고 현지에 기술집약형 모험기업을 설립하는등 새로운 전략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제화전략」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해외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는 선진기업의 국내유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國內企業의 보호등과 관련,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에 관한 完全開放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 國內人力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선진외국의 産業界·学界·研究所등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 약 5천명에 달하는 한국과학기술자를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산업분야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부담하는 協同留學制度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科技處는 또한 國際品質認證의 획득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국내제품의品質과 規格을 국제화하고 신뢰성

을 제고, 제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전자분야에서는 美國의 UL, 캐나다의 CSA, 기계분야의 경우는 美國의 ASME, 독일의 TÜV 등 외국저명 인증기구들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技術士 177명 탄생

통신·전자·造船·에너지등 16개 분야에서 177명의 技術士가 12월 1일 새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이들 技術士들을 분야별로 보면 기계분야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화공 27, 토목 26, 건축·산업용용·국토개발 각 17, 전기 8, 에너지 7, 광업 5, 통신·조선 각 4, 전자 3, 섬유·정보처리·안전관리 각 2명이다.

이로서 64년래 기술계의 최고 자적인 技術士자격증 취득자는 모두 3천 5백 47명이 되었다.

月城原子力, 初臨界 到達

우리나라 유일의 加圧重水型原子力發電所인 原子力發電所 3号機(月城原電, 施設容量 67만 8천 7백 KW)는 11월 21일 처음으로 核燃料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初臨界에 도달했다.

月城原電은 지난 8월 캐나다原子力公社(AECL)가 공급한 初期核燃料를 裝填한 이후 그동안 各系統別 性能試驗을 거쳐 이날 비로서 初臨界에 도달한 것이다.

지난 76년 1월에 착공, 7년만에 竣工단계에 들어선 月城原電은 이번의 初臨界도달로 12월중에 각종 原子爐特性 및 原子爐物理試驗과 出力上昇試驗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商業運轉에 들어갈 예정이다.

原電 2號機, 格納容器 漏洩試驗 完了

原子力發電所 2号機 建設工事は 11월 2일 格納容器綜合漏洩率試驗을 착수, 7일 성공리에 이를 끝마침으로서 竣工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11월말 97.3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原子力 2号機는 全系統에 대한 高溫機能試驗등 각종 시운전시험이 한창이다.

格納容器는 그 内部에 原子爐와 부속설비(증기발생기, 원자로안전계통, 펌프등)를 수용하여 사고시 유출되는 방사능의 외부확산을 방지해줌으로서 중사원과 인근 주민들을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遮蔽設備인데, 上·下部가 半球型으로 된 높이가 약 71m, 직경 32m의 거대한 원통형 鋼製壓力容器이

다.

이 鋼製压力容器는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79년 7월에 1차 內圧試驗과 漏洩試驗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누설시험은 사고시에 외부로의 방사능유출이 허용치 이내로 안전하게 차폐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韓國核燃料(株) 発足

輕水炉 原子力發電所用 核燃料의 제조, 가공,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韓國核燃料株式會社가 설립등기(11월 11일)를 마치고 11월 26일 発足式을 가졌다.

자본금 2억 5천만원(韓電 1억 9천만원, 韓國에너지研究所 6천만원)으로 출발하는 한국핵연료주식회사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발기인 총회에서 金善和 韓電理事를 代表理事(겸직)로, 李宜謙 韓電次長을 상임이사로 선출하고 勳資部, 科技處 韓電, 韓國에너지연구소등 相關기관으로부터 4명의 비상임이사와 1명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하였다.

한국핵연료(주)는 앞으로 2년내에 외국기술진과 合作會社를 설립하여 오는 88년도에 年産 200톤 규모의 핵연료제조공장을 준공, 핵연료의 국산화를 이룩하게 된다.

原子炉操縦면허취득자 待遇改善

韓國電力公社는 원자력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待遇改善 方案의 하나로 原子炉操縦면허취득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인상방안은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근무조건이 불리한 교대근무로 변경되므로 이의 취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폐단을 배제하고 업무중요성에 상응하는 보수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정부가 인정한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운전되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 누설방지등 안전설비를 다룰 수 있는 이들 면허소지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술수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원자력법령은 원자로조종사의 경우 대졸자 1년, 고졸자 3년, 조종감독자는 대졸자의 경우에 한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각각 마쳐야만 면허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韓國重工業, 發電設備機資材製作 國産化率 75% 以上

韓國重工業이 발전설비기자재 제작부에서 75%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함으로써 국내기술진에 의한 발전설비기자립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韓重은 北濟州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용량 1만 kw 기자재를 자체 기술진에 의해 제작 공급해 왔는데 지금까지 건설해 온 국내화력발전소 기자재 가운데 가장 높은 국산화율 75.4%를 이룩했다.

이는 당초 올해 국산화율목표인 57%보다 18.4% 포인트 높은 것이다.

韓重이 北濟州 화력발전소에 제작 납품한 기자재는 증기발전기(스팀 제너레이터)와 機電工事 및 본관철골등인데 스팀제너레이터는 기계공업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의 국산화율제고는 국내기술의 축적과 플랜트수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달의 到着資料

- ▲ Nuclear News <美國> 11月号
- ▲ ATOM <英國> 11月号, 12月号
-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英國> 11月号, 12月号
- ▲ Nuclear Europe <스위스> 11月号
- ▲ 原子力産業新聞 <日本>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号
- ▲ 原子力工業 <日本> 11月号, 12月号
- ▲ 原子力文化 <日本> 10月, 11月号
- ▲ ATOMS IN JAPAN <日本> 10月, 11月号
- ▲ Swedish Nuclear News <스웨덴> 10月, 11月号
- ▲ 原子力年鑑 <日本> 82年版